

보도 일시	2022.5.11.(수) 배포시점	배포 일시	2022.5.11.(수)	
담당 부서	방송기반국 미디어다양성정책과	책임자	과 장	곽진희 (02-2110-1280)
		담당자	사무관	고은희 (02-2110-1293)

방통위, 디지털 미디어 복지 실현을 위한 「'22년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 세부추진계획」 수립

- ▷ 동등한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해 고시 개정[한국수어방송 5%→7%]
- ▷ 비실시간방송(VOD) 제작 지원 종편PP로 확대
- ▷ 전체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TV 누적보급률 35% 달성 추진
- ▷ 맞춤형 재난정보전달서비스 플랫폼 및 아바타수어 생성시스템 개발
- ▷ 장애인방송 품질평가 제도 도입 방안 마련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미디어 격차 없는 행복한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지난해 수립한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 (5개년계획, '21.10월)를 추진하기 위한 2022년 세부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추진계획에는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의 4개 추진과제별로 13개 세부주요내용에 대해 전년도 대비 27.5% 증액된 예산('21년 127.61억 원 → '22년도 162.68억 원, R&D 포함)으로 사업을 확대해 시행한다.

2022년 세부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장애인방송 고시 개정으로 한국수어방송 의무편성비율을 상향(5%→7%)하고 화면해설방송 재방송 편성비율을 축소(30%→25%)하는 등 시각·청각장애인의 동등한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해 나선다.

또한, 장애인의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비실시간방송(VOD)에서도 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21년까지 지상파 4사(KBS·MBC·SBS·EBS)를 지원해 왔으며, 장애인단체의 선호도, 시청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22년에는 종편PP로 지원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지난해까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를 보급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전체 시각·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확대해 보급하고, 누적보급률 35% 달성을 목표로 추진한다. 또한, 기존에는 지원TV를 일괄적으로 보급했으나 이용권 제공 등 개별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 방식도 개선한다.

- ※ '21년 기준 시각·청각장애인 등록 수(보건복지부) : 전체 663,369명, 저소득층 : 143,019명
- ※ '21년 기준 TV 누적보급률 : 전체(224,498명) 33.8%, 저소득층(115,082명) 80.5%

아울러, 유료방송(IPTV)에 가입한 소외계층의 시청편의를 위해 '20년도에는 KT, '21년에는 SKB가 셋톱박스 장애인 특화기능 개발을 완료한데 이어 올해는 LGU+가 기능 개발에 참여한다.

한편, 일상생활에서 새로운 디지털신기술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제고하여 미디어복지를 향유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재난재해 시 장애유형에 따라 정보를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재난정보전달서비스* 플랫폼 기술 개발('22~'24년)에 착수하고, 개발 참여자간 협력을 위한 '이용자참여검증단(리빙랩)'을 구성·운영한다.

- * 클라우드 기반으로 시각장애인(화면해설), 청각장애인(자막, 아바타수어), 어린이(애니메이션), 다문화 외국인(번역) 등 맞춤형으로 재난정보 제공

또한, 청각장애인을 위해 인공지능(AI) 기반을 이용한 아바타수어 생성시스템을 개발하고, '19년부터 추진해 온 음성-자막변환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기 위해 시범서비스(청각장애인 3,500여 명)를 실시한다.

장애인방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장애인단체가 직접 참여하는 '품질평가단'을 구성·운영하고, 장애인방송 품질평가제도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우수콘텐츠 장애인방송 영상 공모전, 국제 컨퍼런스 등 국민 참여 행사 개최와 장애인방송 홍보 콘텐츠를 제작·배포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UN ESCAP(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에 맞춤형TV를 기증하는 등 국제적인 협력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은 포용적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중요한 정책적 과제”임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매체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새로운 디지털 기술 이용과 미디어 활용도를 높여나감으로써 소외계층의 디지털격차를 해소하고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 미디어 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2년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 세부시행계획(요약본)

2. 2022년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 세부시행계획(인포). 끝.

1. 추진 이유

-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21.10월) 5개년 계획(‘21~’25년) 마련에 따라, 2022년도에 추진할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추진과제①] 미디어 콘텐츠 제작지원 체계 강화

① 동등한 방송접근권 보장 위해 고시 개정 및 맞춤형 제작 확대

- 한국수어방송 의무편성비율 상향(5%→7%) 및 화면해설방송 재방송 비율 축소(30%→25%) 등 장애인방송 고시 일부 개정(‘22.8월)
- 필수지정사업자(55개사) 대상으로 장애인방송 제작 확대(‘21년 46억 원 → ‘22년 51억 원) 지원
- 고등 중심의 EBS 교육방송물 재제작을 초·중등으로 확대하고 자막방송 위주에서 화면해설방송으로 확대(3.7억 원, ‘21년 470편→’22년 1,000여편)
-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교육콘텐츠를 영유아기·성인기 중심에서 청년기까지 확대, 특성과 요구에 맞게 콘텐츠 제작(신규10편, 재제작40편, 4억 원)

② 비실시간방송(VOD) 제작 지원 종편PP 확대

- 비실시간방송(VOD)은 ‘21년까지 지상파 4사(KBS·MBC·SBS·EBS) 지원, 장애인 단체의 선호도, 시청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22년에는 종편PP로 지원 확대(7억 원)

※ (‘20년) KBS·MBC·SBS→(‘21년) KBS·MBC·SBS·EBS→(‘22년) KBS·MBC·SBS·EBS·JTBC·TV조선 등

③ 전국 시청자미디어센터와 지자체간 협력체계 구축

- 지역사회의 영세한 장애인기업 성장 촉진을 위해 ‘22년에는 대전·세종시 시청자 미디어센터와 지자체간 협업 추진 및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11월)

④ 기기활용 교육 및 미디어 나눔버스 체험 확대

- 디지털기기 활용 교육콘텐츠(3종) 개발 및 정부·공공기관에 필수교육 과정 강좌를 개설하며 미디어 나눔버스를 활용하여 체험기회 확대('22년 8대)
- * 행정안전부(나라배움터) 및 전국 지자체(디지털배움터) 활용

[추진과제②] 포용적 미디어 접근성 보장

⑤ 전체 시각·청각장애인 맞춤형TV 35% 보급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심의 보급 방식을 전체 시각·청각 장애인 대상 무료 보급(연 15,000대)으로 전환하고 누적보급률 35% 목표 추진(40억 원)
- ※ '21년 기준 TV 누적보급률 : 전체(224,498명) 33.8%, 저소득층(115,082명) 80.5%
- ※ '25년까지 전체 시각·청각장애인 맞춤형TV 누적보급률 50% 목표 추진

⑥ 화면해설방송 통합플랫폼 협의체 구성 및 구축방안 마련

- 장애인단체, 방송사업자, 학계 전문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화면 해설방송 통합플랫폼 구축방안을 마련(~12월),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신청

⑦ IPTV 장애인특화기능 셋톱박스 개발 및 기술표준화

- '21년까지 IPTV(KT, SKB) 셋톱박스의 장애인방송 특화기능 개발을 완료, '22년에는 LGU+ 개발 참여를 추진(2.5억 원)하고 TTA 기술 표준화그룹 운영

[추진과제③] 디지털 신기술의 포용적 혁신

⑧ 맞춤형 재난정보전달서비스 플랫폼 개발 이용자참여검증단 운영

- 소외계층이 장애유형에 따라 손쉽게 재난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재난정보전달서비스* 플랫폼 기술 개발('22~'25년) 착수(10억 원)
- * 클라우드 기반으로 시각장애인(화면해설), 청각장애인(자막, 아바타수어), 어린이(애니메이션), 다문화 외국인(번역) 등 맞춤형으로 재난정보 제공
- ETRI가 개발기관으로 선정('22.4월)됨에 따라, 실수요주체·R&D기관 등을 연계하여 '이용자참여검증단(리빙랩)**' 구성·운영(6~12월) 및 플랫폼서비스 기획 추진(12월)
- ** 사회문제해결을 위해 R&D기관, 서비스사업자 및 이용자가 직접 개발에 참여하고 현장 검증 추진

9] 아바타수어 생성시스템 개발 및 음성-자막기술 시범서비스 실시

-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자막을 수어로 자동 변환하는 아바타수어 생성 시스템을 개발(~12월), '21년에 개발된 음성-자막변환시스템 시범서비스 (3,500여 명, 6~12월) 및 기능 개선을 위한 만족도 조사(9~12월) 실시(19억 원)

※ 【1단계】 음성→자막변환('19~'20) 【2단계】 자막→수어변환('21~'22) 【3단계】 고도화('23~)

10] 스마트TV 전용앱 개발 연구반 구성·운영

- 앱 개발을 위해 장애인단체, TV제조사, 앱 개발업체, 연구기관(ETRI, TTA 등) 등이 참여하는 연구반을 구성하여 앱 기능 설계 방안 등 검토

[추진과제④]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 기반조성

11] 장애인방송 서비스의 품질제고 방안 마련

- 장애인방송 품질 제고를 위해 장애인단체가 품질 모니터링에 참여하는 '품질평가단' 구성·운영(8~12월) 및 평가제도 도입 방안 마련(12월)

※ ('21년) 품질기준 제도 마련 → ('23년) 품질시범평가 → ('24년) 평가제도 도입

12] (가칭)장애인미디어접근기본법(안) 마련

- 소외계층의 미디어접근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종합계획 수립 및 정책 지원을 위해 통합·포괄적인 (가칭)장애인미디어접근기본법 제정안 마련(12월)

13] 온·오프라인 대국민 인식 제고 및 UN ESCAP TV 기증

- 장애인방송 유형별 홍보 영상 제작·서비스*(11월), 우수콘텐츠 영상 공모전, 백서 발간 및 국제컨퍼런스 개최, UN ESCAP(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TV기증 등 국제 협력 강화(12월)

* 방송사, 지하철·버스 스크린도어, 옥외 전광판 등 수단 활용 국민 최접점 홍보 추진

3. 향후 계획

- 각 과제별 세부이행계획 추진 : 연중
- '22년 이행실적 평가 및 '23년 세부시행계획 마련 : '23.2월

2022년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 세부추진계획



1 전체 시각·청각장애인 맞춤형 TV 35%보급

- ✓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전체 시각·청각장애인으로 대상확대



2 동등한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한 고시 개정

- ✓ 한국수어방송 (5% ▶ 7%)
- ✓ 화면해설방송 재방송 비율 축소 (30% ▶ 25%)



3 비실시간 방송(VOD) 제작 지원 종편PP로 확대



4 시청자미디어센터와 지자체 협력체계 구축 (대전, 세종)

- ✓ 장애인 새싹기업 육성 및 장애인방송 제작·체험 제공 등



5 기기 활용 교육콘텐츠 개발 및 찾아가는 미디어교육 확대

- ✓ 장애인단체·복지관 (20개 기관)
- ✓ 특수학교 (20개교), 미디어나눔버스 (8대)



6 IPTV 장애인 특화기능 셋톱박스 서비스 (KT, SKB) 및 개털(LGU+)참여



7 화면해설방송 통합 플랫폼 구축방안 마련 (협의체 운영)



8 디지털 신기술 개발

- ✓ 맞춤형 재난정보전달서비스 플랫폼 개발 착수 (이용자참여검증단 운영)
- ✓ 아바타수어 생성 시스템 개발



9 장애인 방송 서비스의 품질제고 방안 마련

- ✓ 장애인 참여 품질평가단 구성 운영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복지실현